‘황금장갑’ 콤비 탄생 수비의 힘

KIA 김선빈-안치홍 키운 김민호 코치의 해피엔딩

처음엔 묘기하듯 플레이…화려함 보다 정확함 주문

털털한 선빈·예민한 치홍 ‘강약 지도’…부담감 줄여

내 눈엔 아직도 부족…팀 이끌며 희생하는 선수 되길

KIA 타이거즈는 지난 13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통합우승의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특히 ‘예비역’ 김선빈과 안치홍은 복귀 시즌에 나란히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으면서 두 선수를 기다렸던 팬들을 웃게 했다. 10년 차 김선빈에게는 생애 첫 골든 글러브, 9년 차 안치홍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이다.

올 시즌 내야를 든든하게 지키며 ‘V11’을 이끈 두 사람은 ‘골든 콤비’까지 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김선빈은 0.370의 타율로 시즌을 완주하며 1994년 이후 이종범 이후 23년만의 유격수 ‘타격왕’에 이름을 올렸다. 0.420의 출루율로 8위에 이름을 남겼다. 처음으로 20홈런 고지를 넘은 안치홍(21홈런)은 역시 데뷔 후 가장 많은 93타점을 기록했다. 95차례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 10위에도 랭크됐다.

매서워진 방망이로 우승과 골든글러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은 두 사람. 이들의 2017시즌에 ‘수비의 힘’을 빼놓을 수 없다.

김선빈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뜬공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들쑥날쑥하던 송구에도 안정감이 더해지는 등 KIA의 내야 대체 불가 자원으로 우승을 지휘했다. 안치홍도 김선빈과 변함없는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2루수 중 가장 많은 1082.1이닝을 소화했다.

수비의 안정감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올 시즌 처음 스승과 제자로 함께한 김민호 코치가 두 사람의 해피엔딩을 도운 조연이다.

김선빈은 골든글러브를 받은 뒤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코치 김민호 코치님’을 언급했고, 신혼여행을 떠난 안치홍은 아예 김민호 코치에게 대리 수상을 맡겼다. 김 코치가 털털한 성격의 김선빈과 예민한 안치홍, 상반된 ‘골든 콤비’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강약 지도’이다. 필요할 때는 눈물이 쏙나게 호통도 치지만 경기를 할 때는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김 코치는 “코치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마음의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 두 사람의 성격은 다르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절실함은 같다”며 “김선빈은 처음에는 가우뚱하더라. 그런데 배우려고 하고 습득력이 빠르다. 잘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안치홍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씩 세게 이야기를 하고 혼내기도 했다. 잘 듣고 이해한다.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다. 시즌 중에 체력적인 배려를 해주려고 내가 힘들어서 훈련을 못 하겠다고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럴 때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다 하고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김 코치가 두 사람에게 많이 강조한 부분은 ‘편함’이다.

김 코치는 “처음에 둘이 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더블 플레이를 하는 데 상대가 불편하게 하더라. 더블 플레이를 할 때는 수비하는 상대를 배려하고, 화려한 플레이가 아닌 정확한 플레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편하게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를 말했다. 내야수는 있는 듯 없는 듯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비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편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빈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고 실수는 코치님 탓이라고 하신다”며 수비 부담을 덜어낸 부분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즐겁게 훈련을 하고,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에 김선빈의 와이프가 직접 손편지를 써 김 코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골든 콤비’로 새로운 시즌을 다시 보내게 된 스승과 제자. 김 코치는 아직 목이 마르다.

김 코치는 “아직도 내 눈에는 조금 밖에 할 줄 모르는 선수들로 보인다(웃음). 큰 상 받았다고 자만하지 않지 않고, 나이와 자리에 맞는 중고참 선수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팀을 위해서 시합 외적으로도 팀을 이끌어 가는 희생할 줄 아는 선수들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사랑나눔 활동

KIA 타이거즈가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올 시즌 적립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KIA는 지난 13일 투수 임기영, 밝은안과21병원 김근오 원장 등과 함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사랑의 기금’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기금’은 2017시즌 동안 임창용, 양현종, 임기영〈사진〉, 정용운, 심동섭, 팻딘 등이 밝은안과21병원 월간MVP 시상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1위 혼쭐 낸 한국 아이스하키, 평창 희망 밝히다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컵 개막전

캐나다와 접전 끝 2-4로 석패

백지선(50·영어명 짐 팩) 감독이 이끄는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 최강 캐나다와 대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희망을 밝혔다.

대표팀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VTB 아이스 팰리스에서 열린 2017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컵 개막전에서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랭킹 1위 캐나다를 상대로 투지 넘치는 경기를 펼친 끝에 2-4로 아깝게 졌다. 비록 패배했지만 애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선전이다. 한국은 출전 선수 25명 가운데 23명이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출신으로 구성된 캐나다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피리어드 10분이 지날 때까지 2-1로 리드하고 종료 32초 전까지 한 점 차 승부를 펼치며 잘 싸웠다.

지난 시즌 아시아리그 최우수선수(MVP) 김상욱(안양 한라)이 2골을 터트렸고, 수문장 맷 달튼(안양 한라)은 소나기처럼 쏟아진 캐나다의 56개 유효 슈팅 가운데 53개를 막아내는 신들린 선방을 펼쳤다.

한국은 경기 시작 2분 57초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1피리어드 5분 1초에 김기성(안양 한라)-김상욱 형제가 동점 골을 합작했다. 또 1피리어드 17분 44초에 김상욱의 역전 골이 터져 나왔다.

2피리어드 들어 캐나다의 맹공에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며 2피리어드 10분 19초 마크 안드레 가냐니에게 동점 골을 허용했다. 이어 12분 1초에 데릭 로이의 어시스트를 받은 보이텍 볼스키가 날카로운 스냅 샷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며 전세를 뒤집었다.

대표팀은 15일 오후 9시 세계 랭킹 4위 핀란드와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김상욱(위 왼쪽)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VTB 아이스 팰리스에서 열린 2017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컵 개막전에서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랭킹 1위 캐나다에 골을 터뜨리자 한국팀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한국팀은 2-4로 석패했으나 세계 최강 캐나다와의 대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희망을 지폈다. /연합뉴스

2018 LPGA 총상금 750억원

한국서 2개대회 개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8시즌에는 14개국 34개 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원의 상금을 놓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LPGA 투어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비치에 있는 본부에서 2018시즌 대회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대회 개수는 34개로 올해와 같다. 총상금은 6천875만 달러(약 751억원)로 2017시즌의 6천550만 달러보다 325만 달러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열린 대회 가운데 매뉴라이프 클래식과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이 폐지되고, 뉴질랜드 오픈이 2019시즌으로 미뤄진 대신 3개 대회가 신설됐다.

4월 19~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휴젤-JTBC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이 처음 열리고 다음 주 역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화장품기업 앨엔피 코스메틱이 후원하는 대회가 신설된다. 총상금은 150만 달러이며, 대회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18~21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신설 대회가 열린다.

2018시즌에는 모두 14개국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이 가운데 한국에서 2개 대회가 개최된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10월 11~14일 치러지며, 한 주 앞선 10월 4~7일에는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열린다.

내년에 3회째를 맞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년마다 8개국의 정상급 여자 선수들이 벌이는 국가대항전으로, 처음 두 번 대회는 미국에서 열렸다.

앞서 박세리(40)가 이 대회의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LPGA 측은 이 대회가 여자 골프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시즌 개막전은 1월 25~28일 바하마에서 열리는 퓨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이다.

2017시즌 박성현, 유소연, 김인경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인 15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은 고진영이 가세한 내년 시즌에 최다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연합뉴스